

조지 페이튼 박사, 성경 번역, 세션 11, 창세기의 톨레도 사용 과 번역의 의미

© 2024 George Payt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번역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George Paton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번역에 대한 의미와 창세기의

톨레도 용법입니다. 지금 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특정 문구를 사용하여 번역의 적용과 해석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박사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오르마 번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누구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Toledot 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톨레도 이다. 이들은 아담, 노아 등의 톨레도트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어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그리고 이 문장, 이것은 노아의 톨레도 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장이나 그 페리코프의 직접적인 맥락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높은 매크로 수준 문제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번역가로서 저는 본문을 의사소통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권위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텍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과 제가 하는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해석학적 모델의 기초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텍스트에 특정 내용을 넣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톨레도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oledot 의 의미, 의도 및 기능을 제가 작업한 Orma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다른 언어로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뭐가 문제 야? 이 문구나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요? 그래서 톨레도트의 의미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섹션 시작 부분에 나오나요? 섹션 끝 부분에 나오나요? 아니면 둘 다의 조합으로 어떤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시작됩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합의가 없습니다.

성경 버전을 살펴보면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 버전 간에 합의가 없습니다. 우선 의미입니다. 둘째, 이 문장이 처음에 오나요, 아니면 끝에 오나요? 그들은 처음에 위 첨자를 의미하고 끝을 의미하는 콜로폰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특정 부분의 첫 번째 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제안된 의미에는 세대가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역사, 이야기, 기원,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 중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이는 노아의 톨레도트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노아의 톨레도트 입니다. ESV, 이들은 노아의 세대들이다.

NASB, 이것은 노아의 세대에 관한 기록이다. NIV,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기쁜소식번역,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연구와 모든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Toledot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배치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텍스트의 거시적 구조 문제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과 같은 것이 내러티브라면 그것은 역사, 설명, 기록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기록이다. 만약 그것이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 창세기 36장처럼 족보 앞에 나온다면 이들은 아담, 셈,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거시적 수준의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 중 하나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그것이 처음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장에서는 구절을 반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세대이며 실제로 1장 전반부부터 2장 3절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구절 중간에 멋진 큰 섹션 제목과 멋진 큰 섹션 나누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2:4b로 이어지며,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그들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로 거시적 수준의 문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시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정 소송에서 누군가가 살해된다면 경찰이 시작하는 것 중 하나는 동기가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기가 기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길, 분명히 남편이겠죠, 그렇죠? 그를 체포하나요? 아니요.

왜 안 돼?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나요? 그들은 범죄 현장으로 간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은 방에 있는 증거를 봅니다. 싸운 흔적이 있나요? 그들은 거기에 피가 있습니까? 그리고 흘뿌려져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은 혈액이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총에 맞았나요, 아니면 구타당했나요? 그래서 그들은 핏자국을 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봅니다. 그들은 혈액의 DNA를 보고 피해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봅니다. 그 사람에게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의 아내는 다른 관계가 있나요? 그들은 그 사람의 컴퓨터, 전화, 이메일 및 이 모든 기록을 살펴보고 거시적 수준의 동기, 수단 및 기회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조각을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톨레도(Toledot)와 제네시스(Genesis)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거시적 수준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것이 더 높은 구조적 수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Toledot가 동사가 없는 문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없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톨레도(Toledot)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를 보았고, 이 동사 없는 절을 보았는데 그것은 eleh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Ele은 이것들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동사 없는 절에 eleh 가 있는 창세기의 다른 모든 문장들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 증거는 Toledot 과 함께 이 문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leh , Toledot , 당신은 단어, 대명사, 이것들과 명사, Toledot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창세기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러면 창세기에서 톨레도트(Toledot)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톨레도 밖에서 사용할 때 항상 이름 목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누구누구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름을 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누구의 아들들입니다.

문구입니다. 따라서 이름 집합, 목록의 시작 부분에 사용되며 끝 부분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쌍의 북엔드처럼 페리코프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인 클루시오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세트 단위입니다. 처음에 하나도 없이 마지막에 사용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서술 섹션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기 위해 서술 섹션의 끝 부분에 사용됩니다.

그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요약하는 데 사용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디에서든 그것은 서사의 시작 부분, 주로 톨레도 공식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러티브가 끝날 때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인 클루시오 사물이나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시작 부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에 나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2.3의 끝, 2.4의 시작 부분에 있다는 제안은 히브리어에서 문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즉, 그것은 창세기의 족보의 시작 부분에 있고, 2장 4절을 포함하여 창세기의 이야기 부분의 시작 부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구절에 도달하여 그것을 조금 분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소라 본문을 보면 그 대가가 있습니다.

급여는 항상 앞에 오고 급여는 새로운 섹션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지불은 2.3에서 2.4 사이를 포함하여 항상 Toledot 보다 먼저 옵니다. 그래서 마소라 본문에는 내가 방금 설명한 것과 동일한 것을 결정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 섹션의 첫 문장인 시작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6, 8, 10가지의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저는 그것이 아마도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같은 구절에서 두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노아의 톨레도트 라면 백작과 후손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상황이 특정 장소에서 어떤 감각이 촉발되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톨레도 의 사례 39개와 구약성서 전체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사가 없고 단지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것'이라는 단어는 목록의 끝에 있는 것처럼 뒤로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함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러한 단어는 처음에 하나가 있는 경우 끝에 있는 동사와 절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의 출발점은 Toledot 에 관한 것이었고 Toledot 공식 은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se라는 단어는 Toledot 와 동일합니다 .

그래서 그 둘은 같이 가죠. 톨레도(Toledot) 는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등합니다. 그들은 종류가 동등합니다. 숫자도 같고, 성별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언어의 특정 단어에 대해 동일한 일반적인 문법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평등은 문맥에서 복수형을 가리키고 있다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문장에는 없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족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십시오. 족보에 따르면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다. 아르박삿은 이런 저런 것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 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단어를 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얻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딸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종류의 의미론적 틀, 사회의 어떤 틀이 마음에 떠오르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족의 말입니다. 모두 관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과 톨레도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 하시나요? 아담의 후손, 셈의 후손,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의 목록 사이의 차이는 가능한 해석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우리 가족의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진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사진 속 이들은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후손, 즉 여러 세대를 가리킵니다. 남성이 포함될 수도 있고 여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의 후손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에도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족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는 톨레도의 독특한 사용법입니다. 르우벤은 그들의 톨레도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세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5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톨레도 이고 숫자가 주어집니다. 이름이 있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 어쩌면 수천 명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 기능은 르우벤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는 자손을 의미하지만 이름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번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비록 매우 가깝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체 자손의 하위 집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번호가 매겨진 자손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합니다. 956년 유다 지파 등에서 예루살렘 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번호가 매겨진 자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사 이전에 그것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의 다섯 부분에 있는 이야기 이전에만 발생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3장의 이야기 이전에만 발생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툴레도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면 아론의 다른 아들들도 여호와께 반역하여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들들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 창세기 6장에 노아와 함께 등장하는 노아를 보면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직계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테라를 보세요. 이곳은 데라의 툴레도 이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나홀, 롯.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자손을 의미하지만 그의 직계 자녀, 그의 남자 자손에 초점을 맞춘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남성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절에서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9명 중 38명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2.4의 사람들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출발점으로 아버지를 낳은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일부 복수형 항목은 복수형이고 Toledot 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살펴보면, 그 문장은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는 조금 더 길어서 그들이 창조된 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날에 말한다. 그런데 2장, 3장, 4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아담, 이브, 그리고 아들들. 그것이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실제로 타당한 해석이었습니다.

Carr는 그것이 수십 년 전 30년대, 40년대, 50년대, 어쩌면 60년대까지 해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인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이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해석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와 그 자녀들을 의미한다면, 이들은 천지의 톨레도 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아담과 해와를 낳았습니까?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비유적인 부모로 볼 수 있습니까? 일부 학자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어떤 일을 했나요? 지구는 모든 일에 수동적이었습니다. 2:1을 보면 창조를 가리키며 그것을 가리킬 때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장 4절에도 창조됨에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를 낳은 것이 하늘땅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아닐까? 이게 신의 톨레도 라고 했다면, 잠깐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낳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의 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고 그 후에 자녀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날에 그것들이 창조된 이후를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언급조차 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자.

그런 다음 그는 들어왔지만 그 문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두 문법책에는 of라는 단어가 구약성서에서 28가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일부를 보면 다양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빌의 금은 품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오빌이 생산한 것이 금인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빌 땅에서는 금이 있었느냐? 예.

그들이 오빌에서 채굴하여 캐낸 것이 금이었느냐? 예. 따라서 금과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이어서 이것이 이르고 그 모든 것은 그들 안에.

그리고 여기에는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는 별, 태양, 달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들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큰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바다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식물과 동물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의 장소로, 출발점으로 말하는 이 개념에

대해 저는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흠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구 밖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 위치라는 이 개념은 어쨌든 나에게 가장 이해가 되는 해석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담과 이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이 사람들은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태어나는 것보다는 창조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의심이 비유로 사용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창조된 것입니다. 사실 환유이긴 하지만 어쨌든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늘과 땅에서 창조되었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서 창조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의심의 네 가지 주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구를 문학적 장치로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서술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족보 부분, 서술형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는 그 연결되는 설화와 족보 각각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것은 또 무엇과 결합합니까? 그렇다면 본문에 언급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 6:9를 보면 누가 언급되나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런데 6.8은 족보가 아닙니다. 그게 어디야? 그것은 5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5장의 족보를 6장 9절의 사건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 연관성을 봅니다.

이어서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셈은 9장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10장은 민족 일람표 11:9까지입니다. 11시 10분은 셈의 유료 도로입니다. 홍수가 난 지 2년 뒤에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9장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인공 중 하나를 가질 때마다 Toledot는 주인공의 계보를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합니다. 하지만 연결된 두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을 연결하고, 장소를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Toledot가 이러한 모든 것을 주요 스토리라인까지 연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요 스토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된 동사를 보면 Yelad는 '견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Holid는 동사의 또 다른 형태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Toledot는 동사 Holid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아버지가 되는 것, Holid는 이 모든 섹션을 함께 연결하는 링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은 홍수 이전의 시간과 합류합니다. 셈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수가 있는 후, 홍수가 있는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족보와 이야기의 모든 요소를 전체적으로 연결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서술 섹션에 있는데, 우리는 아들을 의미할 수 있는 다른 두 단어를 얻습니다.

하나는 아들 베님 이고, 다른 하나는 씨라는 뜻의 세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실제로 그는 아브람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은 씨 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Toledot와 무슨 됩니까? 아니요, Toledot 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언약, 씨앗, 툴레도가 함께 엮여 창세기 이야기를 앞으로 이어가는 응집력 있는 끈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성한 인간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아담, 셋, 노아, 셈,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들이 창세기의 주인공들입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있고, 언급할 가치가 있는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민족들의 식탁에는 선택받지 못한 후손들이 있습니다.

25장 12절부터 18절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그 족보는 다르게 보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있는 족보를 분할 족보라고 하며, 각 세대마다 한 사람씩 언급됩니다. 다른 하나는 실례합니다. 선형 족보입니다. 분할된 족보는 다른 족보이며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레벨마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그 둘은 서로 다르며, 우리가 살펴보듯이 선형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스토리 라인의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는 창세기 2-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일곱째 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은 거룩하다. 창세기 4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예배 방법.

노아가 홍수에서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는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이러한 특징은 선택된 이들 모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제는 톨레도의 이 구절을 통해 씨앗과 약속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스키마를 봅니다. 따라서 Toledot는 거시적 수준의 내용과 미시적 수준의 내용을 결합하여 응집력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서로 붙어 있고 일관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창세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토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Walton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에게 쉼, 듣기, 아사, 행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처럼 읽으면 그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대한 큰 이야기를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특정 계통의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지만, 그 선택된 계통에 연결되어 있지만 선택된 계통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여전히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그럼 이 다이어그램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다이어그램은 창세기 1장, 1장부터 2장, 3장까지의 프롤로그를 보여줍니다. 이전 섹션에서 언급된 마지막 인물은 톨레도 공식에서 강조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주요 선택된 라인에 끝-시작 연결이 있습니다. 다른 라인이 아니라 주요 선택된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톨레도이다. 이목이 집중되는 주인공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은 셋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셋이 5장에서 족보에 합류합니다. 족보의 마지막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톨레도트 공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셈에게 달려갑니다.

셈은 내러티브 등에서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리-머리 연결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를 통과하고 이 모든 부분을 연결하는 주요 코드인 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톨레도트가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번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아담, 노아, 다른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것은 독자가 이것이 처음 부분의 주요 섹션임을 아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경 버전과 같이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은 Toledot 공식에 사용하는 표현이 두 개 이상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일하다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언급된 사람, 명명된 조상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민수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수기에 아론의 자손을 언급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톨레도 공식 이므로 이들은 아론의 자손이며, 그의 아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독자는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의미에 따라 번역하기로 선택합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때로는 전체 자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전체에 걸쳐 이 강력한 연결 섹션 표시를 위해서는 동일한 표현을 전체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며, 바라건대 이러한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를 번역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적어도 하나의 다른 자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경번역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George Paton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번역에 대한 의미와 창세기의 톨레도 용법입니다.